

2026. 02. 12. 13:49

목요일 오후 진료중입니다. 이제 한명만 더 진료를 보면 예약환자는 끝이에요. 끝나면 어디 짱박혀서 쉬고 싶습니다.

어제는 환전을 해서 IBM을 샀는데요, 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원인불명의 이유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. 그래서 새벽에 몇개 더 샀는데 아직도 한참 마이너스 상태라서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. 현재 MSFT와 IBM이 그런 상황인데 각각 최대 \$5,000 까지 투자를 더 해야하나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.

그리고 또 한가지는 ADM과 CTVA 같은 회사입니다.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황인데 이것 팔았다 재매수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매도후 다른 분야에서 시세 차익을 얻고 싶는데, 그러다 이 회사들이 크게 하락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. 역시...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보니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나을것 같네요. 역시 일기는 생각을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.

휴우... MSFT, IBM, META 이 세 가지를 각각 \$3,000 씩 더 투자 해야겠습니다. 그러면 JPST에 \$9,000 이 남는데 이건 가지고 있다가 GOOGL, TSLA, NVDA 등이 300일 선을 뚫으면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죠. 그래요. 당분간은 현금. 현금이 필요합니다. 시장이 방향성이 없어 보여요. 좀 더 기다리는 쪽도 고려해야겠습니다. 조만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 같으니깐요. 투자는 정말... 너무 어렵습니다.

어제는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 직장의 무전기에 심한 EMI가 들어와서 거의 100 만원이나 주고 BPF를 샀습니다. 그런데 저녁에 장비를 켜니 또 사람 목소리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잡음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. 잠시 망연자실 했다가 하나하나 주위 장비를 끄며 확인을 했습니다. 이런데 왜걸! 공기 청정기를 끄니 노이즈가

씩 사라지더군요. 그래서 공기청정기의 바람세기를 조절해보니,  
팬이 강하게 돌수록 잡음이 강해졌습니다.

젠장. BPF를 괜히 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큰 돈 주고 교훈 하나를  
얻었네요. 아무튼 요즘 이런 일이 많은것 같습니다. 정신을 좀 차려야  
겠습니다.

오늘 집에가면 ① IC-705 + Amp. 시스템을 위한 케이블 만들기를  
하고 ② Flex-weave를 잘라 밴드별 안테나 제작을 하고 ③ 6m 마스트에  
다이폴 안테나를 설치할 방법을 궁리해야겠습니다. 네, 할 일

